

데스크시각



최재호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JB금융지주 광주은행장 차기 후보자가 창립 49년 만에 자행 출신 송중욱 부행장으로 결정됐다. BNK 금융지주가 지방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회장과 행장을 분리했지만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3년간 격적하던 광주은행장 직을 분리시켰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내년 광주은행 50주년을 맞아 조직의 안정 및 내실화와 외연 확장이 이뤄졌다고 판단, 자행 출신 행장 선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4년 JB금융지주에 흡수됐다. 당시 김 회장은 광주은행장을 겸직해 이후 3년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했다는 판단하에 은행장직 연임을 포기하고 분리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 회장의 결단으로 광주은행 창립 49년 만에 내부 출신 토종 은행장 탄생이라는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실질 김 회장이 광주은행장을 처음 취임했을 때만 해도 지역에 대한 애향심(愛郷心)을 기대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

49년 만의 세대교체와 지역경제

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역이 발전하고 커져야 광주은행도 같이 발전한다”는 철학이 확고했다. 지난 대선 때 지역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해 주목을 받은 광주·전남 경제단체의 기자회견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을 보여 준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김 회장 외연 확장·내실 다져

김 회장은 행장 취임 후 특진 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메시지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은행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할상과 혁신적인 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이 서울·인천 등에 소형 전략 점포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이다. “밖에서 벌어서 지역민을 위해 쓰겠다”는 김 행장의 평소 소신과 전략의 실현이었다. 수도권과 풍부한 유통자금을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공급해 숨통을 트게 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김 행장의 노력은 당기순이익 및 영업 이익 등이 크게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 확보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김 행장은 이익 추구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지역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했다. 소외 계층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후원을 비롯한 차별화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등이 그것이다.

또한 김 행장은 한국화의 미래 지향적 비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유망 작가 발굴·육성을 위한 광주화부(畫畵)공모전도 개최했다.

그리고 이제 49년 숙원이었던 자행 출신 행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지주 회장 직만 수행하면서 지주사 경영에 매진하게 된다. 김 회장은 3년 임기 동안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을 반석 위에 올려 놓은 공이 적지 않다. 차기 광주은행장으로 내정된 송중욱 부행장은 순천 출신으로 광주은행 입행 후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으며 금융계 전반에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영업력이 탁월해 지역 내 영업 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송 후보자 행보 지역민 관심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이뤄진 광주은행의 매키러온 세대교체는 적신호가 켜진 지역경제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의 대표 기업들은 경영 위기로 흔들리며 지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와 맥아기 무산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기아 자동차는 통상임금 문제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매출 상승의 그래프는 보기 어려운 형편이고, 67년 기업인

보해양조는 비상 경영 체제다. 광주은행은 그나마 이처럼 어두운 지역경제의 숨통을 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은행 직원이나 은행 주인(주주)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돈을 맡기면 필요한 우리 이웃이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그 영업 이익은 당연히 지역 발전에 쓰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된다.

특히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축적된 돈이 영세 서민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또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발생한 이익을 각종 장학 사업, 문화 사업, 복지 사업에 쓰는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보다 은행 문턱이 낮은 것도 큰 이점이다. 물론 광주은행이 시중은행과 여타 다른 지방은행보다 중소기업 담보 대출 평균 금리가 약간 높고 지역민의 기대보다 사회공헌 활동 비용의 증가가 더디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광주은행의 49년 숙원을 이룬 송 내정자는 이러한 지역민의 열망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송 행장의 행보가 기대된다.

은편칼럼



서미정 광주시의원

운장현 시장남께. 허무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던 여름이 시나브로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찬바람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 신문에서 시장님이 쓴 ‘내 인생의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1989년에 처음 접했다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지요. 책과의 인연을 말씀하시고 덧붙여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시장실 점거와 기림이 엄마의 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시민과 낮은 곳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평소의 시장님과 잘 어울리는 ‘책과의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독자로 변한 편지는 잘 걸려 있을 것이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면서 사

어느 장애인의 죽음

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다짐 또한 변함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 우르겐 힌츠페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이제 1200만 관객을 넘어서 국내 역사상 9번째 흥행 영화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모여 협업을 진행했다는 소식도 반가웠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실과 관광진흥과, 인권평화협력관실, 문화재단, 관광협회, 5·18 기념재단 등이 모여 영화를 보고 광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더 잘 알리기 위해 5·18택시 운행, 시티투어 프로그램 조정, 주먹밥 체험, 전일빌딩에 오월지가 배치 등 실속있는 회의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모듬지기 행정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책임 회피와 더딘 대책 마련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같은 광주시 행정인데 어느 부서는 빠른 협력이 이뤄지는데 어느 부서는 그렇지 못 할까요.

기 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법학전문대, 의대, 사관학교처럼 교육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하기 전문직 종사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 우수한 자원을 확보와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전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교사를 배출하는 교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어져 정부가 입학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수요에 맞추어 교대 정원을 조정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광주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전남은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간의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 사태는 1986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순환근무가 중단되면서 시작되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양극화의 해법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부터라도 국가공무원인 광주·전남 초등교원을 통합 채용해 이월부터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안이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광주에서 신규 교사를 뽑을 때 근무 경력 15년 이내 의무적으로 5~7년은 전남에 근무하도록 단서를 붙여 뽑는 것이다. 교원 인사제도 개선도 젊은 교사들의 전남 기피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어느 지역 근무 지원자가 많으면 유인을 줄이고 부족하면 유인을 늘리는 것이 원칙이다. 도서벽지 근무를 모두 기피한다면 교육청은 일정 수준의 경쟁이 없을 정도로 유인을 늘려야 할 것이다. 여러 이유를 들어 유인을 줄이는 것은 도서벽지와 소외지역 교육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다. 광역시 지역에서도 도서벽지 승진점수를 부활시킨다면 광주와 전남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 희생과 봉사이므로 교육지도자가 될 승진 대상자의 희생과 봉사 유도는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전남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 미달사태가 지속되거나 경쟁률 양극화가 지속

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의 방안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중등 포함)를 대상으로 도서벽지 초등 교사 자원을 공개 채용한 후 이들을 교대에 위탁 하여 1~2년간 도서벽지 전담 담임교사로서의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발령 내는 것이다. 단, 이들의 도서벽지 근무 연한은 최소한 7년 이상으로 명기하고 편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도교육감 추천 정원의 일부를 위탁학생 정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장학금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도교육감 추천 입학제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 통합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유치원과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필요에 맞추어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 실습을 비롯한 제대로 된 교원 교육을 하기 어려운 유치원과 중등교원 양성 체제를 개혁하지 않은 채 교원양성기관을 통합하면 교대마저도 유행하며 소멸의식을 갖출

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지만, 그래도 광주시는 함께 슬퍼하고 시민이 불안하지않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패배자를 좋아한다. 장애인, 외국인, 풍동에서 놀림을 받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춤을 추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어린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스텝없이 무릎을 꿇고, 장애인들과 함박웃음을 보이며 하이파이브를 하시는 시장님께서 덴마크 소설가 페터 헨리의 소설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편지는 문화도시정책관실과 인권평화협력관실을 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 누구에게 지청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는 인권도시와 함께 안전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안전이 바로 인권이며, 인권은 소수자들이 안전해야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합니다. 장애인이 안전하면 광주시민 모두가 안전합니다. 우리 광주가 인권도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나서주시고, 그러면 광주시민도 함께할 것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社 說

문화도시다운 꼼꼼한 경관 관리 필요하다

광주시는 5년 주기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자연 풍경이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부분은 개선해 개성 있는 경치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2030년을 목표로 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적 3만㎡ 이상 개발 사업이나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경관지구 내 3~5층 규모 건축물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주 도심과 외곽의 경관은 날이 갈수록 파괴해지고 있다. 우수건축으로 생겨나는 고층 건물과 아파트 탓이다. 무엇보다 지난 2005년 경관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세웠던 ‘광주 어디에서나 무등산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입주가 마무리된 아홉 개의 고층 건물들은 착공 전부터 ‘무등산을 가린다’는 일부 시민

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가 강행됐다. 경관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는 공공자산인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행정 당국의 인식 부족 탓이 크다.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마지막 단계에 경관위원회에 상정되다 보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만다. 자치구의 경우 경관을 직접 맡아 주관하는 조직이 없고, 광주시 역시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리돼 책임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 이에 걸맞은 경관을 가꾸려면 경관계획의 수립과 심의, 집행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개발에 앞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하고 경관 심의 대상을 모든 신규 개발 사업과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관광 자원 육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관 관리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생 불량 급식 업체 학교가 왜 감싸고노나

초등학교 급식에서 수차례 이물질이 나와 학부모들이 급식 업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무슨 이유나 형식 환경을 개선하는 선에서 현행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라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의 모 초등학교는 광산구의 위탁 급식업체에서 음식을 받아 학부모들이 직접 배식을 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점심을 해결해 왔다. 학부모들은 2학기 들어 배식을 하면서 식판의 위생이 좋지 않은 것을 몇 차례 발견했지만 ‘어쩌다 그랬겠지’ 하며 넘어가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8월 말경, 식판에서 머리카락·휴지·철수세미 조각 등과 같은 이물질이 대거 발견되자 학부모들은 곧바로 학교와 급식업체에 항의했지만 이후로도 위생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급식업체 조리 현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도 엉망인 위생 환경을 보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측의 태도였다. 학교는 급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노골적으로 현행 급식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안에 찬성을 유도했다. 학교 측은 설문에서 3개 안을 택 급식업체에서 음식을 받아 학부모들이 직접 배식을 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점심을 해결해 왔다. 학부모들은 2학기 들어 배식을 하면서 식판의 위생이 좋지 않은 것을 몇 차례 발견했지만 ‘어쩌다 그랬겠지’ 하며 넘어가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8월 말경, 식판에서 머리카락·휴지·철수세미 조각 등과 같은 이물질이 대거 발견되자 학부모들은 곧바로 학교와 급식업체에 항의했지만 이후로도 위생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급식업체 조리 현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도 엉망인 위생 환경을 보고 교육청에 민원을

無 等 鼓	
가족 간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양의무를 놓고 종종 다툼이 생기는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그 시대의 세태를 읽을 수 있다.	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상과부로 30년간 아들을 키워 온 노력을 인정한 것이다. 6월에는 서울고법이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신의 도리라며 부양에 든 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70대 노부부가 딸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딸이 3년2개월간 부모 부양비로 썼다고 한 데 따른 판결이었다.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	부양의무 판결
지는 딸에게 매달 80	원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아버지가 사위를 박대해 딸의 가정을 파괴한 점도 감안한 결정이었다.	로 인정해 눈길을 끌
1994년에는 두 건의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1월 서울가정법원의 “집 나온 노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자식에게서 자발적인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부모에게 부양받을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외아들 부부 집에 살던 김 모(67) 씨는 며느리의 불화로 집을 나와 친척집을 전전하다 벌거 비용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주택 마련 비용과 매달 생활비를 지	었다. 최근 미국 명문대생이 아버지에 게 유학비를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 큰 성년은 안 줘도 된다”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증가한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생활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한정되고 유학비도 통상 생활비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성인이 돼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캥거루 세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광고문의 062-227-960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